



해운대 더베이101에서 출발하는 요트투어에서 진행되는 불꽃놀이. 몇몇의 배가 모여 실시하는데, 큰 규모는 아니지만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바다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가 꽤 재미있다. 부산 | 김재범 기자

밤풍경에 취하고,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

여행지로 부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해운대, 광안리, 송도 같은 해변이나 서면, 광복동으로 대표되는 도심투어, 그리고 감동동문화마을과 영도 현역문화마을 같은 레트로한 골목투어를 떠올린다. 물론 이곳들은 지금도 인기 높은 명소들이다. 하지만 부산에는 이곳들 외에도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곳들이 가득하다. 특히 요즘은 화려한 도심 야경을 앞 바다에서 조망하는 야경투어와 6.25 전쟁 피란수도의 자취를 도는 역사투어가 주목받고 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이국적 야경 황홀 밤하늘 수놓는 '요트 불꽃쇼'도 불거리 6·25피란민 애환짓든 '아미동비석마을' 임시수도기념관 등 부산의 역사 탐방 누리바라기 전망대·명란 로드도 명소

많이 모여 있다. 아미동 비석마을도 이런 특징이 잘 담겨져 있는 곳이다.

원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던 지역인데 6.25 전쟁 피란민들이 이곳에 모여 살며 고단한 삶을 영위했다. 현재는 도시재생을 통해 역사적 특성과 스토리텔링을 살리면서 새로 단장한 문화마을 형태로 탈바꿈했다.

●부산항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아미동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천마산에는 부산항을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전망대들이 많다. 누리바라기 전망대가 예전부터 유명했는데 최근 부산항 전망대가 새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름 그대로 부산항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인근 천마산로 하늘 전망대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있다. 부산을 무대로 한 영화 '국제시장'의 두 주인공 윤덕수(황정민)와 오영자(김윤진)이 벤치에 앉아 국제시장과 남향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었다.

높이 427m의 황령산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남구,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원래 야경 명소로 정평이나 있지만 아침 나절의 시원한 전망도 일품이다.

●명란을 테마로 한 이색 관광

부산역 맞은편 초량동 168계단이 있는 산복도로에는 원래 초량아바구길이라는 시티투어 코스가 있었다. 최근 명란의 발상지로 알려진 이곳 남산창고와 초량전통시장의 이야기를 활용해 명란로드가 조성됐다. 강소형잡채관광지로 명란을 테마로 한 음식점부터 커피스쿨, 카페 등이 모여 새로운 관광 스팟을 이루고 있다. 이곳 명란브랜드연구소 옆으로는 유명한 168계단이 있어 '168계단 마라톤' 같은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offfield@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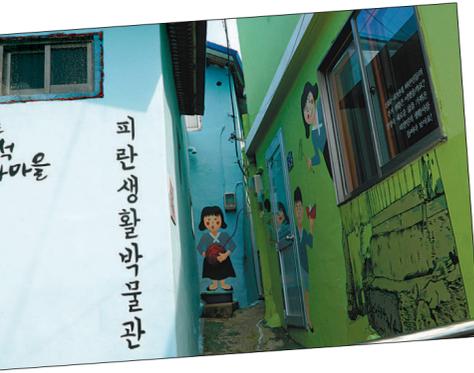
●바다서 바라보는 환상적인 불빛잔치

최근 마린시티, 하버시티, 해운대 엘시티 등 초대형 빌딩타운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면서 바다에서 부산 빌딩숲의 야경을 보는 것이 새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운영하는 요트투어가 대표적인데, 약 5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대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나 해운대 더베이101에서 출발한다.

갑판에 편하게 앉아 빌딩숲의 이국적인 야경을 보는 재미가 제법 신난다. 투어 도중 요트 몇대가 모여 배에서 밤하늘을 향해 불꽃을 쏘는 이벤트도 있다. 야경을 보며 한껏 흥이 오른 정취를 털어내기가 못내 아쉽다면 투어 선착장이 있는 더베이101를 주목하자. 젊은 감성의 음식점과 카페 등이 모여 있어 뒷풀이 장소로 딱이다.

●아미동 비석마을 골목길 투어

부산은 6.25전쟁 시절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였다. 지금도 피란 수도 시절의 역사적 건물과 유적이 남아있다. 서구 구덕로 동아대에는 임시수도정부청사였던 구 경남도청 건물이 있다. 1925년에 일제가 지은 붉은 벽돌 건물로 휴전 이후 다시 경상남도청이 됐다가 이후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



6.25 전쟁 피란민들이 모여살던 아미동비석마을. 미로처럼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과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을 고스란히 보존한 문화마을로 당시 시대상을 잘 볼 수 있다. 부산 | 김재범 기자

방감찰청 본관 등으로 사용됐다.

청사 뒤편에는 이승만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다. 현재 임시수도기념관으로 이승만 대통령 유품을 중심으로 소장품 152점을 전시하고 있다.

지금이야 바닷가를 매립해 해변에 변화가 형성됐지만 부산은 원래 산지가 해안에 인접해 평지가 좁은 지역이다. 그래서 가파른 산허리에 서민들의 주택들이

여행

스포츠동아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15

롯데월드 여름 축제 '아이스 월드' 17일 개막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여름 축제 '아이스 월드'(ICE World)를 17일부터 8월28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파크 곳곳에 아이스크림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실내 어드벤처 1층 만남의 광장에는 5.2m 높이의 거대한 화이트 베이 '아이스 팩토리' 포토존이 생겼다. 야외 매직아일랜드 매직캐슬과 아틀란티스 출구에는 더위에 녹아져 내린 듯한 아이스크림 포토존이 조성됐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은 17일부터 '오색한 조선과 답소:호랑이의 노래, 창귀'를 진행한다. 아이스가든에서는 한여름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공연 퍼레이드도 여름에 맞춰 업그레이드 했다. '고! 고! 바캉스' 공연이 매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새로 선보이는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을 테마로 한 거리 포토공연이다. 이밖에 매직캐슬에서는 3D영상 미디어로 새하얀 얼음으로 풍광 얼어가는 과정을 묘사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새 호텔 '마티에' 7월 개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새로 론칭하는 라이프 스타일 호텔 '마티에 오시리아'의 7월1일 공식 개관을 앞두고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22일까지 진행한다. 한화는 2030년까지 마티에 브랜드로 1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예약 프로모션은 마티에 스위트, 스위트 오션, 프레시티지 객실을 대상으로 최대 68% 할인한다. 숙박 기간은 7월1일부터 28일까지다. 부산 기장군에 오픈하는 '마티에 오시리아'는 200개 객실의 80% 이상을 4인 투숙이 가능한 스위트 형으로 구성했다.

하이원리조트,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도입

하이원리조트는 실시간 적립과 사용이 가능한 '하이원 리워드 포인트'를 도입한다. 이용금액의 2%를 적립해 100포인트 이상 쌓이면 골프, 스키, 워터월드, 호텔, 식음업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하이원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하며 리조트 객실은 홈페이지 또는 예약실을 통해 이용한 경우만 적립이 가능하다. 이용 당일만 적립 가능하며 2년 동안 적립 또는 사용 실적이 없거나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모바일 앱) 회원 탈퇴 시 소멸된다.

호텔 L7, 투숙객에 유럽식 조식 '투고박스' 제공

라이프스타일 호텔 L7명동은 투숙객에게 투고박스 형태의 조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데일리 픽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7월14일까지 룸 온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도 투고박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베이글, 크로와상의 베이커리류, 바나나 등의 과일과 펍 형태의 음료 각 3종으로 구성했다. 도시 여행객 취향에 맞게 간단한 유럽식 아침 식사인 콘티넨탈 조식 스타일로 꾸며졌다. L7명동 3층 라운지에서 오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인당 1개씩 픽업할 수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17일(금)		
서울 20/30	18 29	인천 20/30	18 26	춘천 20/30	16 29
강릉 0/0	0/0	대전 20/60	18 30	전주 20/30	18 30
광주 20/30	19 30	대구 0/20	18 32	부산 0/10	20 26
창원 0/10	19 28	제주 0/10	20 28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4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17일 (금) 음력: 5월 1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 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부인이나 자식, 근친자로 인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밖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가정의 화목하게 된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격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한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 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선배와 상의하라.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스스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타인의 도움도 합쳐져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어떠한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의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망동을 삼가 하라.